

사회

하수관거·수도관·가스관 매설 등 70여곳 도로 굴착

날 풀리자 곳곳 파헤쳐 '광주는 공사중'

홍보 제대로 안되고 공기 길어 시민 불편 민원 쇄도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광주 시내 도로 70여곳에서 동시에 굴착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물론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 구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상하수도관 매설 등이다.

이처럼 시내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차선 통제와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로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은 남구 봉선동, 진월동, 양림동 등 5개동 20곳, 북구 문흥동, 용봉동, 일곡동 등 9개동 40곳 등 모두 70여곳으로 공사 연장 길이만 약 300km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광주시 하수관거 BTL

사로 인해 절반의 차선이 통제돼 차량들이 오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공사 이후 구형이나 시정의 심의를 거친 굴착 공사는 차선 전체를 재포장하고, 소규모 굴착 공사는 굴착 부분을 재포장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업체나 기관들이 형식적으로 보수만 하고 있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굴착공사로 인해 도로 점유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 건수는 잇따르고 있다. 올 1/4분기 시에 신청한 건수는 동구 1건·서구 16건·남구 5건·북구 11건·광산구 5건 등 28건이고, 각 자치구별로는 동구 10건·서구 30건·남구 35건·광산구 29건 등 모두 104건이 허가가 됐다.

구는 다음달에 39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굴착 연장이 10m가 넘지 않는 소규모 굴착 공사 신청도 올 들어 27건에 달하는 등 도로점용 허가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공사 현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는 '도로굴착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하면서 각 지역별 굴착 공사명과 사업자, 착공일, 준공일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박주혁(39)씨는 "최소한 사전에 미리 공지하고, 출근 시간을 피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바쁜 출근 시간에 도로를 막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8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 인근 서빙로가 하수관거 굴착 공사로 일부 차선이 통제되면서 차량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소란 피우다 출동한 경찰과 대처중

하천 뛰어든 장애인 숨진 채 발견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40대 지적 장애인이 하천에 빠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25분께 순천시 오촌동 배수펌프장 인근 하천에서 A(47)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순찰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순천경찰서 모 과출소 직원 2명은 이날 새벽 1시34분 A씨가 고등학교생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제압하

려던 경찰에게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던지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등 40여분간 경찰과 대치했으며, 이날 새벽 2시40분께 경찰을 피해 인근 하천으로 뛰어 들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색을 확대했으며, 두 시간 만에 수심이 1.5m인 하천에 숨

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사건 현장에서 3~4km 떨어진 순천시 품덕동에서 80대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거칠게 저항해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하천으로 뛰어 들어 달아났다"며 "당시 어두워서 그를 붙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경찰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남구청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업체

1년간 수익금 1억 누락 탈세

광주의 한 구청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업체가 1년 동안 1억원에 가까운 견인료 수익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탈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28

일 '불법 주·정차 견인업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관할 경찰과 세무서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남구의 차량 주·정차 단속 및 견인·

보관업무를 대행하는 S업체는 지난 한 해 동안 1억원 가량의 견인료 수입금을 누락해 보고한 의혹을 사고 있다.

남구는 지난 2009년부터 남구의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업체가 한 달 평균 275대(대당 견인료 3만원)의 차량 견인료 수익을 누락한 채 보고하는 수법으로 한 해 동안 약 1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는 이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해 매달 실제 벌어들인 건 인 수익의 18% 가량을 누락해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재석 감사담당관은 "이번 결과는 지난해 5월과 11월, 2개월 표본을 추출해 추정한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정문 절차를 거쳐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하는 행정처분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밀렵감시단증 위조 장사

전남경찰, 야생동물 불법 포획 6명 붙잡아

밀렵감시단 신분증을 위조해 돈을 받고 판매하고 이를 구입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동물보호협회 밀렵감시단 신분증을 돈을 받고 판매한 임모(51)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마취총으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김모(49)씨 등 4명을 야생동물보호협회 위반 혐의로,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총기류를 관 총포사 운영업자 주모(43)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구속된 임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H동물보호협회 명의 밀렵감시단 신분증 31장을 위조해 1장 당 15만원에 밀렵꾼들에게 판매한 것은 물론 밀렵꾼을 단속해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또 검거 당시 무허가 총기 3정과 700여 발의 탄환을 불법 소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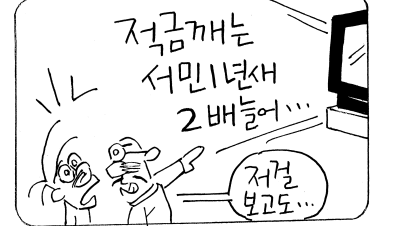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밀렵감시단을 사칭해 무허가 수렵행위를 해왔으며 불법 총기와 수백 발의 실탄, 탐조등, 손도끼, 갈고리 등 밀렵도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개조한 업종의 탄환은 멧돼지도 쉽게 관통할 정도의 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부나 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냥법인들이 자체적으로 밀렵감시단을 조직,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이중 일부는 무허가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오히려 밀렵을 자행하고 있었다"며 "불법 총기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 불법 수렵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512) 김종두



휴대폰 발신지 추적 모녀 자살 막았다

여수경찰, 가족에 인계

경찰이 휴대폰 발신지 추적 모녀를 찾아내 가족에게 인계했다.

여수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화성경찰서로부터 딸(11세)과 함께 가출한 A(여·33)씨의 휴대폰 전원이 여수시 화정면 남도 인근에서 꺼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날 남편에게 "말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꺼버렸다. 여수경찰은 곧바로 화정면 남

도 일대를 수색하는 한편 휴대폰 위치 추적에 나섰다. 시간이 늦춰질수록 A씨 등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판단에 화정면 남도주민들까지 경찰 수색에 동참했다.

여수경찰 강력2팀(팀장 강용호) 등 4명이 A씨 모녀를 발견한 것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로, 당시 A씨 등은 민박집에서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살을 막은 뒤 곧바로 가족들에게 이들을 인계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승부조작' 프로야구 LG 선수 조사

또 다른 선수도 곧 조사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28일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야구 LG 트윈스 김모(23) 선수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선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김 선수는 자신의 고교 선배로 지난 25일 구속된 대학야구 선수 출신 김모(26)씨를 통해 프로스포츠 승부·경기조작 브로

커 강모(29)씨 등을 소개받아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선수를 상대로 경기조작 개입사실 여부와 경기조작 경기수, 받은 사례금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기조작 개입의혹이 있는 LG 트윈스의 또 다른 선수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선수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은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밝힐 수 없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QR코드' 배포

광주경찰

광주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117 QR코드'를 생성해 배포에 나섰다.

QR코드는 광주경찰청 및 경찰서 홈페이지 게재되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306개교 홈페이지 팝업창에

실린다.

또 광주경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버 안전드림팀과도 연계 운영된다. 특히 청소년 밀집장소인 PC방, 노래방, 편의점 등의 장소에 'QR코드'로고가 게재된 홍보물을 부착해 학교폭력 신고·상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군의회 부의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광주지법 목포지원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 2단독)은 28일 승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양모 신안군의회 부의장에 징역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양 부의장은 지난 2007년 10월 말께 사무관(5급) 승진 청탁을 대가로 신안군청 강모 담당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소형 저운차량고 보조금을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또 법원은 양 부의장에게 돈을 준 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인했다가-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성인용품을 진열·보관한 상점 업주가 경찰서행.

○2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A(여·59)씨가 상점 전면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특정기구류를 진열·보관했다는 것.

○경찰은 "판매 목적으로 특정 성인용품을 진열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개학을 앞두고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밀집 지역의 신분증 유휴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폭 증가!**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출입시기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준비과목
각 군별 1회 지원		복수지원
		3학년입학 / 2년재학
		영어(인문) / 영어,수학(자연)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3월2일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